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3. 4. 10

서 정훈 연구위원
이 유정 연구원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4/3~4/7)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 2월 PCE가 예상치를 하회하였음에도 OPEC+ 감산 이슈에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되며 장중 1,320원대 진입하며 상승 출발. 이어 미 PMI 지표 부진에 연준의 피벗 기대 강화되며 하락 전환했으나, 중국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위안화 약세 영향 반영하며 상승 지속 흐름. 중반, 미 민간 고용 감소에 연준의 피벗 기대감이 높아지며 하락 전환. 후반 들어, 미 민간 고용의 시장 예상 하회 등이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기대감 보다 경기침체 우려가 더 부각되면서 위험회피 강화 속 상승 추세 이어진 국면. 여기에 대만 관련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위안화 약세와 4월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수요 등으로 1,320원대 재진입. 주 후반, 연은 관계자의 미국 경제 견조 발언에도 3월 미 비농업 고용지표 둔화 예상에 위험회피 완화되며 소폭 하락 후 마감

달러/원 전망

- 미 3월 고용지표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인식 속에 경기 둔화 우려가 다소 완화된 영향 등으로 5월 베이비스텝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 반영에 따라 소폭 달러 강세 기조 우위가 예상
- 여기에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수요 등이 집중될 가능성 등도 달러/원 환율 상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 반면, 고점인식 수출 관련 달러 매도 물량과 중공업 수출 물량 및 외환 당국의 1,320원대 상향에서의 경계감 등이 상단을 제한할 요인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중 금통위 결정 등에 의한 방향성 등으로 변동성 수준은 다소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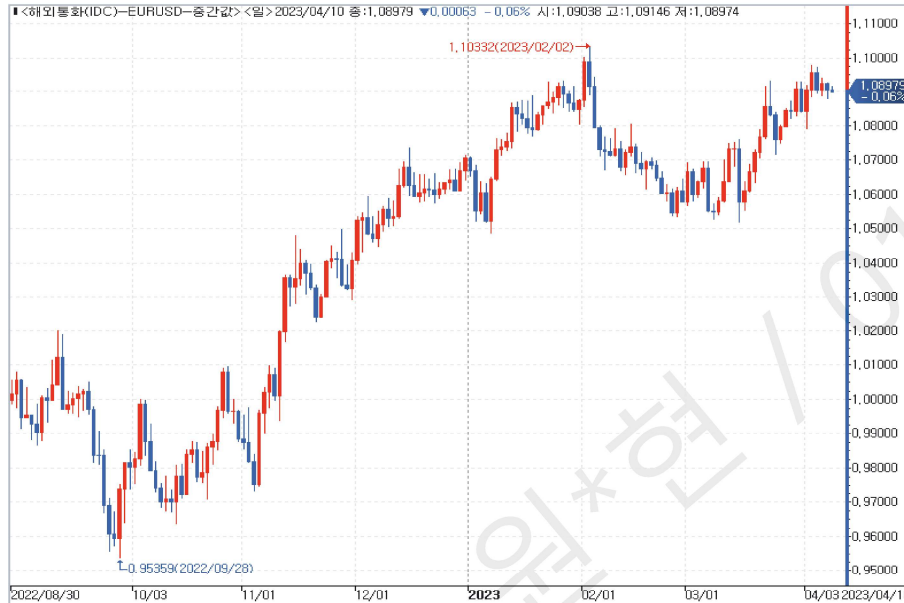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06.2	1321.1	1304.5	1316.7	+10.5

예상거래범위

1,295원 ~ 1,325원



엔·유로화 동향 (4/3~4/7)



유로화 동향

- 주초, 글로벌 은행 위기 진정 상황에서 유로존 3월 근원 CPI가 여전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연준이 고용 둔화에 피벗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 것과 달리 ECB는 매파적 기조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유로화 강세 출발. 이어 독일 2월 수출도 크게 증가한 모습 등으로 강세 흐름 이어지는 모습
- 중반 들어, 미국 민간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에도 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 우려로 받아들인 영향에 따라 위험회피 심리 강화 속에 유로는 약세 전환
- 후반 들어, 독일 생산관련 지표 개선과 ECB 관계자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언급에 소폭 강세로 재전환. 그러나 주 후반, 견조한 미 고용시장에 연준의 정책전환 가능성 낮아지면서 ECB의 매파적 통화정책에 강세 보이던 유로화는 약세 전환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841	1.0974	1.0788	1.0904	+0.0063

엔화 동향

- 주초, OPEC+ 감산 이슈에 유가 급등한 가운데 이 영향이 일본 무역수지 적자 확대를 견인할 수 있다는 우려에 엔화 약세 출발. 이후 부진한 미 3월 PMI 지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와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 요소인 미 민간 고용이 둔화되는 모습에 미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며 엔화는 강세 전환
- 중반 들어, 미국 민간 고용 둔화 등에 따른 경기침체 이슈 부각이 안전 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치며 엔화 매수 증가에 강세
- 후반 들어, 여전히 미 경제에 대한 견고한 인식을 나타낸 연준 주요 위원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발언에 상대적으로 약세 보이며 상승 흐름 나타낸 가운데, 미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시장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5월 베이비 스텝 가능성 높아지는 가운데 약세 흐름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2.8	133.8	130.6	132.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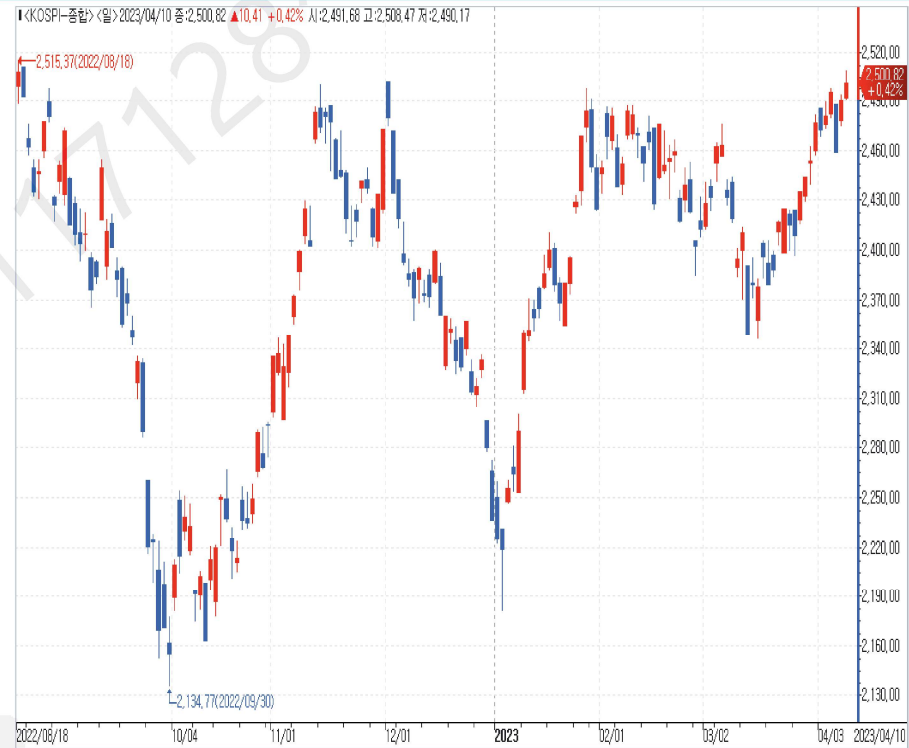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4/3~4/7]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초, OPEC+의 원유 감산 소식이 국제시장 약세 재료로 작용하며 국고채 금리는 상승 출발. 이어 유가 이슈에 따른 연준 긴축 가능성이 다소 제한될 것이라 전망 속에 RBA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에도 경제에 대한 선행평가 이슈 등의 비둘기 스탠스 반영되며 큰 폭 하락.
- 중반 들어 미 채용공고 건수 감소 소식을 반영하며 금리 하락 추세 이어졌으나, 이어진 뉴질랜드 빅스텝 결정 등이 반영되며 보험권 흐름 되돌림 된 양상
- 후반 들어, 미 미간 고용 건수와 서비스 PMI 지표의 시장 예상치 하회 등이 미 경기 우려를 확대한 가운데 국내외 금리 급락에 영향을 미치 영국. 수급 측면에서도 국고채 입찰 소화 후 수급 상 여유가 생긴 측면도 금리 급락 요인으로 작용. 이어 주 후반, 미 3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제심리가 확대되며 소폭 상승 흐름으로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OPEC+의 원유 감산에 따른 연준 긴축 영향 등이 투자심리 약화에 영향을 미치며 하락 출발. 이어 전일 유가 감산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소화하며 강보합권 흐름으로 전환
- 중반, 미 고용부진 가능성과 경기 불안 우려에 뉴욕금융시장이 약세를 보였음에도 상기 요인이 연준 긴축 완화 가능성을 반영한 가운데 기관 매수세 강화 등으로 상승 지속 국면
- 후반 들어, 미 ADP 민간 고용의 부진 영향이 경기 침체 우려로 전이된 영향 속, 이후 발표 예정인 비농업 고용지표도 부진할 가능성 등에 따른 외국인 순매도 확대 등으로 하락 전환한 양상. 이후 주 후반, 삼성전자 1분기 어닝쇼크 소식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도 이어진 감산 공식화 소식에 시장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며 재차 상승 흐름 전환 양상 속에 마감